

## 양성평등 사회와 생활문화

옥 선 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생활 속에 내재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서 발견되는 생활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념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과연 양성평등 의식이 생활 속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양성평등 사회와 생활문화에 대한 주제선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김태현 교수의 주제발표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 정부는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2003년도 1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속에 정착 어떻게 그러한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와 취업현장에서의 일정비율의 여성근로자 확보라는 외형적 의미만이 회자되고 있다. 이에 김태현교수가 양성 평등한 삶에 영향을 주는 양성평등, 불평등의 현황과 양성평등사회의 저해요인을 밝혀 보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지향해야할 생활환경을 살펴본 점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던 이제까지의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양성평등의 개념을 ‘인간적인 권리를 나누어 가지는’ 즉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한 점에 적극 동의한다. 인간은 ‘남녀’ 로 구분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 으로 존재하며, ‘인간’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권리와 의무를 공유함은 당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의 측면에서는 ‘인간’ 이 아닌 ‘남성’ 과 ‘여성’ 으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원천적인 차별을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인희, 한정자 교수의 연구결과 남녀평등 실현수준이 가정영역에서는 62.5점, 직장영역에서는 54.6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이 체감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의 양성평등의식에 비하면 예상외의 높은 점수이다.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으로는 오직 남성이기 때문에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명시적으로 받는 경우는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경향이 있으나, 암시적으로는 양성 차별적 의식구조가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함인희, 한정자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한 김태현 교수의 해석을 듣고 싶다. 과연 현행 취업구조 속에서 직장의 남녀동료들은 그들이 맡은바 업무의 위계성과 절대 비율의 불균형 속에서 양성평등은 실질적으로 구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일차적인 책임을 공유하고 가정 일에 참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M자형을 보이고 있는 점은 양성평등사회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출산, 육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취업현장에서 휴직과 복직이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전문기술직의 경우에는 휴직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M자형 경제활동 참여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출산 및 육아 시기의 취업 지속성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높은 연령층 여성이 취업한 직종은 상당비율이 임시적 또는 단순노동 특성을 가짐을 예측하게 하며, 휴직 후 복직이 어려운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기의 이중고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전문 기술직, 행정관리직, 고위임직원등의 직종에 여성의 참여율은 매우 낮으며 증가하는 속도 또한 매우 느림에 비하여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여성비율이 높은 점은 직업의 위계성에 대한 편견을 타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직업에 대한 위계적의식은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요청된다. 또한 김태현 교수가 제시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의 저해 요소 중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여성으로서의 귀족적 지위’란 과연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한편 여성주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공적제도이다.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사적 영역으로 보는 시각은 과도기적 산업사회의 일시적인 시각일 뿐이다. 구태여 가족생태론에 입각한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논하지 않더라도, 인간사회가 형성된 이래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기능한 가족은 사적 영역이 아니다. 가족은 사회의 구성과 유지, 발전을 위한 일차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공적 영역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양성평등사회 구현의 단초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Leonhauser교수가 제기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해 볼 때 독일의 상대적인 여성 지위의 불평등 상황이 2000년 독일 정부의 성주류화 정책 시행 이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기대한다. 또한 가정학자들이 가정 연구의 분석적 접근에서 성 차원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성인지적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정의를 부탁한다.

김태현교수가 제안한 지향해야할 생활환경으로서 가족과 일에서 양성평등의 획득,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출산과 모성됨, 양성 평등한 자녀 키우기, 남녀간에 공평한 가사노동, 경제권 확보, 및 남녀간에 공평한 주거공간 확보, 남녀가 함께 즐기는 식생활 문화 형성 및 남녀가 함께 공유하는 패션 문화 창출을 지향하는 생활환경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양성 평등 환경조성과 더불어 양성 평등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통해서 양성평등 생활문화의 정착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의견을 첨가한다.